

# 익산시, '백제왕도' 명성 강화한다

### 2021년까지 100억 투입 '역사관·가상체험관' 조성 다양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 관광기반 구축

익산시가 백제왕도의 역사성에 홀로그램 콘텐츠를 가미해 고도의 명성을 강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내 유일 백제왕궁에 마련돼 있는 왕궁리유적 전시관의 증축과 가상체험관을 조성해 백제왕궁 역사관으로의 변모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왕궁리유적 전시관을 증축, 백제왕궁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가상체험관을 조성해 백제왕궁의 모습을 재현,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심고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유적전시관의 실내 전시실 등을 확대하고 수장고의 기능을 보

강한다. 가상체험관에서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공간에서는 익산천도와 백제왕궁건립 등 세계유산을 3차원으로 복원, 관광객에게는 능동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3월 백제왕궁 역사관 증축과 가상체험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오는 2020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백제왕궁 역사관과 가상체험관은 오는 2022년 1월 개관되며 이 시설은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백제왕궁 역사관 건립을 통해 왕궁리유적 등 세계유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유일의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광양시, 매실 대체 새 소득과수 도입 나서 플럼코트·체리 등 시범농가 대상 현장체험교육

광양시는 지난 23일 매실대체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대상 농가와 관심농가 21명이 현장체험교육을 가졌다. (사진) 광양시는 전국 제1의 매실 주산지인 매실재배면적 확대와 매실 소비감소, 복숭아 싸살이증발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 매실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시는 새로운 소득과수로 부상하고 있는 플럼코트와 체리를 매실 대체작목으로 육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확보해 플럼코트 2ha, 체리 1ha를 추진하

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가들은 정읍시 용동면에 있는 곳모닝제리영농조합을 방문해 조미숙 대표로부터 품종선택, 체리 재배요령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나주시 공산면에 있는 하모니농원을 방문해 이완기 대표로부터 플럼코트 재배요령과 덕 설치 요령, 품종선택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도 가졌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순창군 발효소스토굴을 찾은 관광객들이 동굴 벽면에 그려진 대형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 비안도~가력항 여객선 군산시, 10월부터 운항

군산시는 비안도와 가력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항한다고 26일 밝혔다. 2002년 뱃길이 끊어진 지 17년 만이다. 새로운 여객선은 군산시가 5억원을 들여 11 t 급으로 건조한다. 운항 거리는 비안도~가력항 6.5km다. 비안도 주민들은 그동안 여객선이 없어 소형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군산시는 여정도와 연도를 오가는 노후 여객선도 250 t 급 고속선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선이 투입되면 군산항까지 56km를 운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으로 현재보다 1시간 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여성바둑 세계 최강 가린다 남원시, 31일 국제바둑대회

"여성바둑 세계 최강을 가린다." 국내 유일 여성 세계 바둑대회인 '제4회 국제 바둑 춘향선발대회'가 31일부터 6일간 남원시 춘향골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참가한 530여명의 여성 바둑고수들이 바둑최강자 타이틀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국제바둑 춘향선발대회는 여성 바둑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열려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대회에서 여성 바둑 최강자 자리에 오른 춘향 진(1등)에게는 1000만원, 춘향 선(2등)과 춘향 미(3등)에게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나주국악협회, 대만서 액막이굿 등 전통공연 호평

나주국악협회(지부장 이한규)는 최근 대만 타이중시 대리구(大理區) 소재 국광리활동센터(國光里活動中心)에서 전통공연 놀이인 '액막이굿' 등 한국 전통 공연을 펼쳐 대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사진) 이번 공연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해당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해 한국 전통공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옛부터 나주 전역에서 유행했던 '진동 액막이 굿'은 나주를 대표하는 풍물굿으로 인정받았으며 일제강점기때 농악놀이로 불렸던 풍물놀이는 팽과리, 장구, 북, 징 등의 네가지 악기(사물)와 나발, 태평소, 소고 등의 악기를 기본으로 구성한다.

악기연주와 더불어 놀이판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한 잡색(양반, 각시, 어우동, 포수 등)들의 몸 동작이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관객들과 한데 어우러져 보는 공연이 아닌 같이 즐기는 공연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청량제같은 시원함을 선보였다. 2부 공연에서는 전통한복을 입은 무희들이 무용을 선보임으로써 우리춤의 고고함과 화려한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해 관객들의 탄성과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이번 공연단은 최연소자의 나이가 53세에 달할 정도로 고령자들로 이루어진 아마추어 단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순창 발효소스 토굴 이색관광지 인기

### 장류업체 장류·소스 보관 가상현실체험콘텐츠 마련 올해 방문객 7만여명 예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의 발효장류를 저장하는 인공동굴이 이색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2016년 개장한 길이 134m, 최대폭 46m의 대형 발효소스토굴에 2017년 5만5540명, 지난해 6만2424명이 방문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맞먹는 관광객이 다녀가 7만명이 넘을 것으로 군은 예상한다. 토굴은 순창지역 장류 사업체들의 장류와 소스를 보관하면서 다양한 전시관과 콘텐츠도 마련해 관광지로 주목을 받는다. 군은 발효소스토굴의 인기 이유로 가상현실(VR)체험 콘텐츠를 짚는다. 군은 총 5억2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VR체험 콘텐츠를 설치했다. 이로써 VR기기를 머리에 쓰고 콘텐츠 내 영상을 보는 기존 방식을 탈피, 직접 게임 속 플레이어가 되어 체험할 수 있게 했

다. 호남지역 최초로 현실감을 더하는 고품격 체험장비도 설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중에서 VR 콘텐츠 이용료는 5000원~1만원이다. 동굴 벽면에 그려진 대형 미술작품들도 볼거리를 제공해 인기에 한몫을 더한다. 순창군 관계자는 "발효소스토굴은 생생한 가상현실 체험에 여틈철에도 평균 15도를 유지해 피서지로도 인기가 높다"며 "토굴 내 발효커피 카페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